

〈赤壁賦〉賞述

洪 瑀 欽

◀ 目 次 ▶	
一. 緒 論	四. (赤壁賦)의 藝術性
二. 作家 蘇軾의 爲人	五. 結 言
三. 〈赤壁賦〉創作의 原因	

一. 緒 論

〈赤壁賦〉는 〈前赤壁賦〉와 〈後赤壁賦〉가 있다. 〈前赤壁賦〉는 宋 神宗 元豐 8年 壬戌 즉 西紀 1082年 7月 16日에 지어졌고 〈後赤壁賦〉는 그해 10月 15日에 지어졌으니¹⁾ 이미 907年이란 나이를 먹은 작품이다.

이 〈적벽부〉는 작가인 東坡 蘇軾(1036~1101)이 걸출한 인물이었던 탓도 있겠지만 작품 자체가 뛰어난 名作이라 불후의 생명력을 지니고 읽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던 것이다. 蘇軾의 文集은 물론이고 특히 宋代의 黃堅이 《古文眞寶》²⁾란 文章敎本을 편찬할 때 이 두 편의 〈적벽부〉를 실어 널리 보급시킨 뒤 文章을 배우거나 연습하는 사람 치고 〈적벽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일약 천하의 명문으로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던 것이다.

朗誦하여 그 風味를 鑑賞하기도 하고, 그럼으로 작품세계를 그려 보기도 하고, 그 내용을 臺本으로 삼아 遊戲를 즐기기도 하고, 글씨로 전체 작품을 描寫하여 그 興致를 체험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藝苑眞寶로서의 대우를 받아 온 걸작이다.

그러나, 여산을 보면서도 여산의 참 모습을 이해하기 어려움과 같이 〈적

1) 王宗稷著, 《東坡先生年譜》四十七歲條

2) 黃堅, 《古文眞寶》: 戰國時代에서 宋에 이르기까지의 詩文을 輯錄한 前後 三卷의 敎本. 前後集 各 十卷

벽부)를 좋아하면서도 진정으로 <적벽부>의 실상을 이해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

黃看成嶺側成峯, 가로로 보니 재이더니 옆에서 보니 봉우리라,
遠近高低各不同, 멀고 가깝고 높고 낮음 하나도 같지 않네.
不識廬山支面目, 여산의 참 모습을 알기가 어려운데,
只緣身在此山中. 다만 이내 몸이 산중에 서 있네.
〈題西林壁〉³⁾

와 같은 이치일지 모른다.

필자는 평소 이 <적벽부>에 대해 느끼고 있던 몇 가지 소견을 피력해 봄으로써 그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해하는 계기로 삼을까 한다.

二. 作家 蘇軾의 爲人

문학작품은 그 작품을 쓴 사람의 모든 것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개 옛날의 문장은 그것을 쓰기 위해 쓴 것은 없었다. 쓰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 쓰여진 것들이었다. 산천의 구름과 초목의 꽃이 속이 차서 겉으로 피어나듯 쓸 생각이 없으면서도 저절로 표현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문학을 논하심을 들은 바, 옛날 聖人들의 문장은 聖人 자신도 어찌할 수 없어 지었던 것이라 하셨다. 때문에 나와 아우 轍이 지은 문장이 지극히 많지만 감히 글을 짓겠다는 의도로 짓지는 아니했다.……산천의 아름다움, 풍속의 소박함, 현인군자들의 유적 등등 귀와 눈에 와 닿는 것들이 뒤섞여 마음을 뒤흔들어 저절로 읊어진 것들이다.」

〈南行前集序〉⁴⁾

와 같이 蘇軾流의 古文家 문장은 더욱 그러했다. 내뿜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영혼의 분출, 그것이 그들의 문학실체였다. 때문에 그들이 남겨 둔 문학작품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람됨을 먼저 살펴 보지 아니할 수 없다.

3) 蘇軾, 《東坡全集, 前集》卷十三

4) 위의 책 卷二十四, 〈南行前集叙〉

蘇軾의 사람됨을 한 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자유분방·총명활달, 비분강개한 천성, 유사 이래의 모든 고전을 섭렵소화하여 쌓은 폭넓은 지식, 儒·佛·仙 三家思想을 융회관통하여 체득했던 달관한 인생관, 광활한 대지를 유랑하며 보고 들었던 자연의 이법,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당쟁의 선봉에 섰던 치세의 경륜…이 모든 것이 蘇軾 爲人의 골격을 이루었던 것이다.

몇 갈래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才能이 英傑遠大한 사람이었다.

「열살 때 모친 程氏가 친히 글을 가르침에 고금의 성공하고 실패한 일을 듣고는 그 요지를 간추려 말할 수 있었으며, 20세를 전후 해서는 경전과 역사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었다.»⁵⁾

는 그가 타고 난 재능이 얼마나 총명영특했는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예다.

蘇軾이 中國文學史에 空前絶後の 위대한 문학유산을 남겨 놓을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은 바로 이 뛰어난 천재성을 염두에 두고 규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당대의 재상 韓琦가 「蘇軾의 재능은 멀고 큰 그릇이다.»⁶⁾라고 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는 멀고 크며 영특한 재능을 바탕으로 우주를 수용하고 자신을 길렀던 것이다.

「公의 爲人은 英傑하고 奇偉하며 議論에 밝고 氣節이 있었다. 그래서 문장을 지으면 붓을 놓자 말자 온 천하에 전해져서 閩巷田里와 변방 여러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⁷⁾

는 蘇軾의 사람됨과 문학의 관계를 지적한 말이다. 오늘날 전해오고 있는 그 방대한 동파문학은 英傑奇偉하고 遠大한 東坡의 才能이 길으로 噴出된 자취들이다.

2. 氣節이 높고 강한 사람이었다.

宋孝宗은 〈御製文忠蘇軾文集贊〉에서 東坡의 氣節과 文學의 관계를 다음과 같

5) 《宋史》〈蘇軾傳〉：生十年，母程氏親授以書，聞古今成敗，輒能語其要，……比冠博通經史」

6) 위의 글：「軾之才，遠大器也」

7) 李紹，〈重刊蘇文忠公全集序〉

이 說破한 적이 있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文章家가 되려면 반드시 천하에 뛰어난 큰 節을 세워야 하며, 천하의 큰 節은 그 氣가 죽지 천하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니면 세울수는 없다. 孔子는 말하되 큰 節이 있어서 뺏을 수 없는 사람은 君子라고 했으며, 孟子는 말하되 「나는 나의 浩然한 氣를 잘 기른다. 氣를 끈게 길러 해치지 아니하면 우주를 채울 수가 있다」고 했으니 대개 자신의 정신 속에 있을 때는 氣지만 그것이 사물을 처리하는데 나타나면 節이 된다. 節과 氣가 조화된 것이 道다. 이 氣와 節이 조화된 道로써 文章을 이루면 剛健하고 풍부하게 된다. 때문에 이런 문장은 천지의 조화와 맞설 수 있고 나라가 융성하고 쇠퇴함의 운기를 좌우하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꾸미고 다듬음(雕蟲篆刻)의 어린 아이들 유희에 불과한 것이다. 어찌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蘇軾에게 太師의 작위와 文忠이란 諡號를 내린 것이다. 蘇軾은 충성스럽고 곧은 언론으로, 朝廷에서 큰 節을 세웠으니 당대의 대신들이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그는 호방한 氣를 바탕으로 배운 바를 실행했던 사람이었다. 온 천하를 방황유랑 했지만 문장은 쇠퇴하지 않았으며 그의 筆力은 천지조화와 닿아 있었다. 元氣가 흘러 넘쳐 이치를 궁구하고 천성을 다했으니 참으로 하늘과 사람을 관통했던 문장가였다. 山川의 바람과 구름, 초목의 꽃과 열매 등 천태만상을 다 받아드려 마음 속에서 녹여 문장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었다.」

는 蘇軾의 文學作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示唆하는 바 크다. 여기서 이른바 「氣」는 사물을 생성·존재·운행시키는 힘이며, 節은 사물의 體格을 形成 維持시켜 주는 마디다. 어떤 사물에 있어서도 氣와 마디가 없는 것은 없다. 다만 그것이 얼마나 강하고 약하며, 높고 낮으며, 크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유화전대 蘇軾은 조랑말의 氣節을 타고 난 사람이 아니라 千里馬의 氣節을 소유한 文章家였다. 때문에 그 정신적인 骨格은 억세면서도 흰출하고 그 솟아나는 추진력은 달리고 달려도 지칠 줄을 몰랐던 것이다.

그는 이 우주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그 호연한 氣와 억세고도 흰출한 節을 조화시켜 이룩한 道를 文學으로 승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3. 強烈한 愛情의 所有者였다.

蘇軾은 열정적인 이상주의자 蘇洵과 독실한 불교신자 程氏夫人 사이의 두째 아들로 태어났다. 유전적인 면에서도 이미 우수한 혈통을 타고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릴 때부터 母親 程氏의 불교정신에 입각한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일찍부터 生命에 대한 畏敬心과 愛情을 몸소 체득했

던 것이다. 어린 蘇軾·蘇轍 형제가 뛰놀던 정원의 숲 속에는 가장 낮은 가지에도 들새들이 등우리를 치고 알을 낳아 새끼를 기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점을 암시해 주고 있다.

새새기 한 마리도 학대하거나 죽여서는 안된다는 이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의경심과 애정은 蘇軾의 인생관과 우주관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자신에 대한 강인불굴의 투지, 父母 兄弟 妻子에 대한 지극한 孝友,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강렬한 忠憤 宇宙萬象에 대한 끝없는 관찰과 사색 이 모든 생각과 행위는 다 그 생명을 외경하고 사랑하는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蜀人衣食常苦艱，	蜀人은 의식걱정 벨날이 없지마는，
蜀人遊樂不知還。	蜀人은 놀이 즐겨 끝낼 줄 모른다네。
千人耕種萬人食，	천 사람이 밭을 갈아 만 사람이 먹게 되니，
一年辛苦一春閒。	한 해는 괴로워도 봄날만은 한가롭네。
閑時尚以鬻爲市，	한가할 땐 언제나 고치 팔러 시장 가서，
共忘辛苦逐欣歡。	괴로움 함께 잊고 즐거움을 쫓는다네。
去年霜降斫秋荻，	지난 해 상강 때에 가을 갈대 베어다가，
今年箔積如連山。	금년에 쓸 잠박을 산처럼 만들었네。
破甑爲輪土爲釜，	박을 쪼개 물레 짓고 흙으로 가마 구워，
爭買不翅金與鈔。	다루어 돈과 비단 바꾸기 급하다네。
憶昔與子皆童年，	옛날 그대 나와 어린 시절 생각함애，
年年廢書走市觀。	해마다 책을 덮고 저자 구경 갔었다네。
市人爭誇鬪巧智，	장사꾼들 물건자랑 기교지혜 다루럼애，
野人暗啞遭欺瞞。	시골 사람 멍청하게 속임수에 빠졌다네。
詩來使我感舊事，	시상이 떠 오름에 옛날 일 느껴움애，
不非去國非流年。」	나라 떠난 슬픔이라 세월흐름 슬픔일세。

〈和子由踏青〉

는 蘇軾이 자신의 어린 시절 고향 四川省 眉山縣의 풍습을 추억하며 쓴 시다. 蜀人의 의식걱정, 蜀人의 낙천성, 蜀地方 특유의 고치시장 풍경, 재치 있는 장사꾼들과 순후한 시골 사람들의 인정세태, 어린 시절 자신이 아우 子由와 더불어 책을 덮고 시장판으로 달려가 친진난만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 보던 추억……등은 누구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평범한 소재들이다. 그러나, 이 소재들은 蘇軾의 마음 밑바닥에서 솟아나온 생명에 대한 의경심과 강렬한 愛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8) 《蘇東坡全集》(河洛圖書) 卷第四十

동우리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어린 새의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그 애정의 深淵, 애정의 眼光은 고향을 그리워함에도, 가족을 사랑함에도, 그대로 넘치고 번득이고 있다. 蘇軾文學世界를 영원불후케 하고 있는 생명력이며 독자의 흥금을 사로잡는 신비의 매력이다.

4. 達觀한 사람이었다.

達觀은 편견을 초극한데서 오는 인생관이며 세계관이다. 蘇軾은 어릴 때부터 모친 程氏의 불교신앙에 깊은 감화를 받은 동시에 儒家思想을 中心으로 道家思想을 깊이 체득했던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는 일찍부터 正統思想和 異端思想을 구별하여 그 어느 한쪽에 서지 아니했다. 儒家의 입장에서 불가와 도가의 이치를 설파하고 佛理나 老莊의 가르침으로서 儒家思想을 관통했던 것이다.

거의 일생을 당쟁으로 인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虛無寂滅의 厭世觀에 사로잡히거나 양양불락한 복수심을 가진 적이 없다. 悲觀과 樂觀, 消極과 積極, 愛와 憎, 有와 無를 초극한 達觀의 경지에서 자신을 꾸리고 남을 대했다. 여기서 그는 超然의 理法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했던 것이다.

「대개 사물은 어느 것이나 다 불만한 가치가 있다. 진실로 다 불만하기 때문에 다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괴이하고 기특하며 보배스럽고 화려한 것일 필요는 없다. 찌강을 먹고 맹물을 마시고도 취할 수 있으며 채소와 초근목피를 먹고도 배부를 수가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내 어찌 즐겁지 아니함이 있으랴」

〈超然台記〉⁹⁾

는 그의 達觀한 인생관을 보여 주는 一例라 할 수 있다. 蘇軾에게는 어느 것은 불만 하고 어느 것은 불만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괴이하고 보배스러운 것은 그것대로 불만하고 평범하고 쓸모 없는 것은 그것대로 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찌강을 대하면 찌강을 즐기고 고량진미를 대하면 고량진미대로 즐길 뿐이다. 어느 것이 더 즐겁고 덜 즐거움이 없었다. 악착스럽게 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억지로 화를 면하려고 하지도 아니했다. 그저 맞이하고 당하는 데로 즐기며 살아 갈 뿐이었다.

蘇軾의 문학은 이 초연한 달관의 경지로 일관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그 참모습을 더듬을 수 있을 것이다.

영결원대한 재능, 높고 강한 기질, 강렬한 애정, 현상을 초극한 달관의 경지가 모든 것이 융회贯通되어 흘러 넘친 것이 소동파의 문학임을 잊어서는 안될

9) 《蘇東坡全集》(河洛圖書)卷第三十二

것이다.

〈赤壁賦〉는 바로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三. 〈赤壁賦〉創作의 原因

〈赤壁賦〉의 실상을 파악하려면 작가의 사람됨은 물론이거니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적벽부〉가 어떤 연유에 의해서 지었던 것인가를 구명해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가 있다.

1. 新舊法黨의 黨爭

蘇軾의 生涯中 30代 이후의 모든 일들은 다 이 新舊法黨의 黨爭과 연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

新法黨은 參知政事 王安石을 中心한 新法制定 施行을 主導한 사람들이다. 神宗 熙寧1年(1068) 4월에 地方官으로 나가 있던 王安石이 上京하여 政治意見を 제시하는 論策을 상주하자 神宗은 이를 받아들여 制治三司條例司란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王安石으로 하여금 이 특별부서에서 新法을 장안토록 명령했다. 王安石은 여기서 均輸法, 科擧法, 市易法, 保馬法, 方田均稅法 等 經濟, 教育, 國防에 關한 여러 가지 새로운 法을 제정 공포했다.

그러나, 王安石 一黨이 주창하여 제정한 이 법안들은 시행과정에서 당시 지배계층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歐陽修, 韓琦, 司馬光, 范鎮, 李常, 蘇軾 등은 그 대표적인 저항세력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蘇軾은 新法制定을 반대하는 선봉상의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었다.

〈議學校貢舉狀〉, 〈諫買浙燈狀〉, 〈上皇帝書〉, 〈再上皇帝書〉 등은 蘇軾이 新法을 反對했던 내용의 글들이다.

「오늘날 무고히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 制治三司條例司라 일컫는 동시에 거기서 6, 7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밤낮으로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일 일을 강구하고, 使者 40여명을 보내 변방의 일들을 간섭하여 폐해의 조짐이 크게 일어나자 백성들은 놀라고 의심하며, 법을 제정함이 사리에 맞지 아니하므로 아전들은 다 당황하여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上皇帝書〉¹⁰⁾

를 비롯하여 사사건건이 명쾌유창한 반대의견을 개진했던 것이다. 여기서부터

10) 위의 책 《奏議集》卷

蘇軾은 新法當의 미움을 삼과 동시에 타도표적이 되었다. 〈上神宗皇帝書〉와 〈再上皇帝書〉 등의 上疏文을 올리자 마침내 王安石이大怒하여 謝景溫을 시켜 蘇軾의 과실을 誣告, 처단할 음모를 꾸몄다. 다행히 司馬光, 范鎮 등 重臣들의 변호로 죽음을 면하긴 했으나 이때부터 蘇軾은 中央의 權座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1071년 36세의 蘇軾은 자청하여 杭州通守로 물러 앉았다. 소식은 4年間の 항주통수 생활을 자신의 인생관과 우주관을 크게 넓히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장차 〈赤壁賦〉와 같은 名作을 남길 터전을 닦은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烏台詩案과 黃州流配生活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식은 자청하여 外地에 나가 있으면서도 新法制定에 관한 반대는 여전히 격렬했다. 39세 되던 해 宰相, 韓絳을 향해 守實法, 方田均稅法의 폐단을 극렬하게 비판하였다. 이런 이유로 1079年(44세) 7月 湖州에 머물고 있을 때 諫官이 蘇軾의 詩에 크게 朝廷을 비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무고했다. 그 해 8月 18日 드디어 御史臺 獄吏에게 체포되어 御史臺獄에 가지었다. 이것이 이른바 「烏臺詩案」사건이었다. 「오대시안」의 음모자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蘇軾을 처형하고자 별별 계책을 늘어 놓았다. 그러나, 張方平, 范鎮, 蘇轍 등의 적극적인 구명운동으로 겨우 목숨은 보존할 수가 있었다. 이로 인해서 12월 29日 특사되어 黃州 團鍊府使로 축출유배 당하고 말았다. 45세되던 해 (1080) 1月 1日 京師를 떠나 2월 1日 黃州配所에 도착했다. 사경에서 살아난 그는 黃州에 도착한 후 오래동안 定惠院에 기거하면서 두문불출하였다. 여기서 《易傳》九卷, 《論語說》五卷을 完成했다. 46세되던 해 2월에 馬夢得이 田地 몇 고랑을 주면서 경작하라고 했다. 蘇軾은 출생 후 처음으로 이 田地를 경작하여 기근을 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고초와 역경은 이루 형용할 수가 없었다. 蘇軾은 그 전지가 있는 황주 들판을 東坡라고 명명하고 字號를 東坡居士라고 불렀다. 소식에게 있어서 이 4년동안의 黃州流配生活은 참으로 곤혹스럽기 그지없는 일이기도 했지만 그 극도에 이른 고통의 경험이 도리어 문학으로 승화되어 영원불후한 명작을 남겨 놓게 된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赤壁賦〉는 바로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전적벽부〉는 1082년 소식의 나이 47세되던 해 7월 16일에 지은 작품이고, 〈후적벽부〉는 그 해 10월 15일에 지어졌던 것이다.

이 두 작품은 실로 황주 유배생활이 아니면 얻을 수 없었던 蘇軾文學中 최대 걸작품이었다. 따라서, 〈적벽부〉를 감상하려면 반드시 烏臺詩案事件과 黃州配所

의 情況을 먼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四. 〈赤壁賦〉의 藝術性

〈적벽부〉는 이상과 같은 바탕과 경위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藝苑眞寶로써의 명성을 떨쳐 왔다. 그럼 그 실제 작품이 어떤 예술성을 지니고 있었기에 읽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도 강렬하게 사로잡을 수 있었던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思想의 圓融性

蘇軾은 영걸원대한 才能, 높고 강한 氣節을 타고 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열렬한 애정으로 대했던 사람이었던 만치 인격을 도야하고 지식을 쌓음에 있어서도 남 다른 점이 있었다.

따라서 20세를 전후해서 經史와 諸子에 博通하고 30세를 지나면서 佛敎敎理의 요체를 터득하여 宇宙와 人生에 대한 觀點을 확립했던 것이며, 그 확고부동한 人生觀으로 國家와 民族의 장래를 위해 분투했던 것이 바로 新法黨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이 신법당에 대한 저항운동은 결국 蘇軾 자신으로 하여금 스스로 중앙권좌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면 안되게 만든 동시에 감옥살이와 유배란 극한 체험을 면치 못하게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풍부한 지식, 투철한 인생관을 소유한 문인이 패배의 잔을 들고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느 쪽이겠는가. 죽지 아니하면 사는 길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죽으면 지금까지 투쟁해 온 삶이 무의미해질 것이고, 살면 눈 앞의 세상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그는 이 모순과 갈등을 과연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蘇軾은 生死의 기로에서 「超然」이란 경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초연」은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 부유함과 가난함, 승리와 패배... 등등 상대적인 개념을 초월한 경지다. 모든 것에 욕심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 들이며, 있는 그대로 살다가 있는 그대로 가는 경지다. 이른 바 達觀에서 얻어진 체념의 세계다. 끝없이 높고 깊고 멀고 큰 세계다. 누구에게나 보이지만 잡히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나 들리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경지다. 잡히지 않고 이해할 수 없으나 무궁한 쾌락과 감동과 마력을 지니고 있는 세계다.

蘇軾의 〈赤壁賦〉는 바로 그 밑바닥에 이 같은 超然思想을 깔고 있다.

「蘇子말하되, 「순님께서는 물과 달의 원리를 아십니까? 흘러가는 것은 이 물과 같으나 아직 다 흘러간 적이 없고, 딱차고 텅빔이 달과 같으나 텅 비었다하여 없어지거나 딱차다하여 더 커지지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하늘과 땅도 한 순간을 그대로 지탱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하지 아니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사물과 나는 다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대체 부러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前赤壁賦〉

는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소식은 끝없이 흘러 가는 물, 그믐달, 초승달, 보름달의 현상을 통해 우주만물의 변화함과 변화하지 아니함의 양면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우주 만물은 변화한다는 관점에서 바라 보면 일순간도 변화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움막이 초가집으로,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기와집이 빌딩으로 바뀌는 도시의 변화 : 어린이가 소년으로, 소년이 청년으로, 청년이 장년으로, 장년이 노년으로 늙어 가는 생리의 변화; 가난한 사람이 부자로, 부자가 가난뱅이로 바뀌는 빈부의 변화…… 등등, 변화하지 아니하는 일이나 물건은 없다. 때문에 사람들은 움막집보다는 초가집을 짓기 위해, 초가집보다는 기와집이나 빌딩을 짓기 위해 몸부림치며, 노인이 아이의 체질을 갖기 위해 불사약을 구하며, 가난하고 미천한 사람이 부유하고 고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경주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희, 노, 애, 락, 애, 오, 욕의 갈등과 번민을 극복하지 못해 죽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목을 놓아 통곡하기도 한다.

그러나, 변화하지 아니한다는 관점에서 보라 보면 우주만물은 그 어느 것도 영원히 변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만년 전의 달, 천년 전의 달, 오늘 밤의 달이 같은 달인 것처럼, 옛날에 흐르던 물, 눈앞에 흐르고 있는 물, 접시물, 냇물, 호수물, 바다물이 같은 물인 것처럼 : 움막집, 초가집, 기와집, 빌딩은 그 무엇이거나 사람이 비피하고 잠자는 보금자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귀한 사람도 하루에 세 끼 밥, 가난한 사람도 하루에 세 끼 밥먹다가 백년을 채우지 못하고 가는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산봉우리가 평지로 변화하거나 평지가 웅기하여 산 봉우리로 변화하는 것처럼, 명경지수에서 파도가 일어났다가 파도가 다시 명경지수로 돌아가는 것처럼 변화하는 현상 속에 변하지 아니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식은 이 변화함 속의 변화하지 아니하는 원리를 터득했기 때문에 죽음과 삶, 부귀와 빈천, 사랑과 미움, 있고 없음을 초월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 아무 것도 부러워 할 것이 없는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모든 물건은 각각 주인이 있는 법이니 진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비록 한개의 터럭끝 만지라도 취할 것이 없지마는 오로지 강위의 맑은 바람과 산속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음악이 되고 눈으로 보면 그림이 되나니 취해도 금할 사람이 없고 사용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가 다함 없이 갈무리해 놓은 물건이니 나와 그대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위의 글〉

와 같이 소식은 주인이 정해져 있는 물건, 즉 변화할 수 있는 물건을 취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있으면서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는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산 속의 밝은 달빛을 가지겠다고 했다. 그것은 조물주가 창조해 둔 변화할 속의 변화하지 아니하는 세계 즉 영원불변한 생명의 본질이며 원천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를 배게 삼아 동방에 해돋는 줄을 잊어버렸다」
(相與枕藉乎舟中，不知東方之既白)

〈위의 글〉

는 바로 그 변화속의 불변이 부엌인가를 암시해 주고 있다.

〈赤壁賦〉가 독자의 심금을 감동시키는 그 첫째 요인을 바로 이 원용한 「超然思想」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

2. 表記의 寫實性

「賦는 펼친다는 뜻이다. 색체를 펼치고 문장을 펼쳐 사물을 본뜨고 뜻을 묘사함을 이른다.」¹¹⁾와 같이 賦의 表現技法은 원래 直叙描寫함에 그 특색이 있다.

하지만 漢代의 賦家들이 쓴 賦는 대부분 實相을 제쳐 두고 華麗하게 꾸며진 말단 늘어 놓은 작품들이 많았기 때문에 眞實性이 깃들여 있지 못했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浮虛함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혐오감마저 불러 일으켰다. 그것이 漢代 賦의 특색이며 결점이었다.

그러나 〈赤壁賦〉는 그렇지 아니다. 그 서두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작가의 절실한 현실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표현한 수법마저 비교적 사실적인 기법을 원용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생동감과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

11) 劉協《文心雕龍》，〈詮賦〉：「賦者，鋪也，鋪采摛文，體物寫志也」

「임술년 가을 칠월 열여섯날, 蘇子が 손님과 함께 배를 타고 赤壁 밑에서 노는데 맑은 바람이 조용히 불어 오므로 물결은 일지 아니했다. 이에 술잔을 들어 손님에게 권하면서 시경의 明月詩를 읊기도 하며 窈窕章을 노래하기도 했는데 조금 뒤에 동산에 달이 떠서 북두칠성과 견우직녀 사이를 배회하는도다. 흰 이슬은 강에 비끼고 물빛을 하늘에 다았는데 하나의 갈대잎과 같은 배를 저어 萬頃滄波를 거슬러 올라 갔도다. 넓고 넓도다 허공을 의지하고 바람을 몰아 어디까지 가려내고, 가볍게 저어가서 세상을 버리고 홀로서니 날개를 달고 仙境에 오름인가.」

는 <前赤壁賦>의 서두 부분이다.

7월 16일은 이제 막 여름을 벗어나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계절의 전환기다. 낮은 아직도 따가운 햇살이 기승을 부리지만 해가 지고 달이 뜰 때 쬐이면 서쪽에서 불어 오는 한 가닥의 시원한 바람이 강 위를 스쳐 가는 계절이다. 여름내 태양열에 더워졌던 강물이라 조용히 불어 오는 바람에는 아직도 민감하게 물결을 일으키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강물에서 증발한 더운 증기가 서늘한 밤공기와 부딪치자 흰 이슬로 엉키는 순간이다. 음력 7월 16일의 달이라 보름달 보다는 조금 늦게 뜬다. 늦게 뜬 초가을의 달이 북두칠성과 견우직녀성 사이를 배회할 때 쬐이면 이미 밤중에 가까운 시간이다. 대지의 열기가 식어지고 달빛이 밝을수록 강 위에 서린 이슬은 더욱 차거워지고 이슬이 차거워질수록 강물과 하늘이 맞닿는 점은 더욱 아득해진다.

동산에 달이 뜨기 전부터 밤중에 이르기까지 벗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시를 읊조리며 거슬러 저어 온 배라 뒤를 돌아 보아도 망망하고 앞을 바라 보아도 끝이 없는 강물이었다. 이 무한한 공간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소식은 비로소 한 조각 갈대잎 위에 놓여진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이다.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 어디론가를 지향하고 있는 자신은 이미 속세와의 거리가 좁힐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음을 인식했던 것이다. 그는 그 허무하고 고독한 피안의 세계를 仙境으로 미화했던 것이다. 物理와 心理에 어긋나지 아니한 靈實的인 표현이다. 달 밝은 밤 일엽편주 위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자연을 玩賞하고, 역사를 회고하고, 우주와 인생을 담론하는 장면은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한 폭의 그림이다.

「손님이 즐거워 웃으면서 잔을 씻어 다시 권함에 안주는 다하고 잔과 술상이 제멋대로 호터러져 있었다. 배위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개 삼아 동쪽 하늘에 해가 뜬 줄을 잊어버렸더라」

는 결말부분이다. 興爛滿醉했던 움직임의 세계를 영원한 정적의 세계로 승화시

키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बे게 삼아 해돋는 줄을 망각한 채 잠들어 버린 이 主客의 영상은 情中有動, 言外有意的 추상화다. 독자를 사로잡는 무한한 정취가 여기에 응결되어 있다.

〈後赤壁賦〉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10월 16일 밤 두 손님과 함께 雪堂에서 臨臯로 돌아 오며 보고 듣고 느낀 체험을 美化한 내용이다.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렸음으로 나뭇잎이 다 떨어졌다. 사람의 그림자가 땅에 비침에 치어다 보니 밝은 달이 떠 있다.……강물은 흘러 소리를 내는데 깎아지른 벼랑은 천길이나 되는구나. 산이 높으니 달은 적고 물이 열으니 돌뿌리 보이는구나.」

는 철저한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心像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詩中有畫」의 경지다. 누구나 쉽게 읽고 쉽게 이해하여 깊이 마음 속에 간직할 수 있게 하는 표현수법이다.

3. 事實의 虛構性

〈赤壁賦〉를 대하면 그 하나 하나의 장면이 대단히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음으로 해서 누구나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사실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 들이게 된다.

그러나, 〈赤壁賦〉의 현장을 조사한 보고서나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적벽부〉에 표현된 사실은 그 상당 부분이 虛構化된 것임이 증명되었다.

「蘇자가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옷깃을 여미며 바로 앉아 손님에게 「그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손님이 말하되 「달이 밝고 별이 드물 때 쯤 까마귀와 까치가 남쪽으로 날아 간다.」고 했음은 曹操의 詩가 아십니까? 라고 했다. 이에 서쪽으로 夏口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武昌을 바라보니 산과 강이 서로 얽혀 울울창창할 뿐이로다. 이것이 바로 曹操가 周瑜에게 공격을 당한 곳이 아닌가. 周瑜가 바야흐로 荊州를 파하고 순풍에 돛을 달고 江陵으로 내려오에 戰船은 천리나 이어졌고 깃발은 공중을 가리웠더라.」

는 그 대표적인 예다. 〈赤壁賦〉의 배경으로 묘사된 원래의 赤壁은 湖北省 嘉魚縣東北陽子江南岸이다. 東漢建安十三年 曹操가 남쪽으로 吳를 攻略해 음에 吳主 孫權의 장수 周瑜가 蜀主 劉備와 연합하여 바로 이 赤壁 아래서 조조를 맞아 대전을 벌렸다. 火攻으로 조조를 대패시킨 현장이다. 史家들은 이 戰爭을 赤壁大戰이라 부른다.

그러나, 소식이 〈적벽부〉를 쓸 때 뱃놀이 하던 눈 앞의赤壁은 적벽대전 현장의 적벽이 아니다. 湖北省 黃岡縣城外 黃州에 있는 赤壁磯다. 적벽대전과는 전연 관계가 없는 장소다. 현장답사 기록에 의하면 이 赤壁磯 아래로 흐르는 강은 그야말로 조그만 개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漁船마저도 자유로이 떠울 수 없는 곳이라 戰船은 애초 들어오기가 불가능한 강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은 이 적벽기를 적벽대전의 적벽으로 표현했음은 물론 千里나 이어진 戰船이 전쟁을 수행했던 현장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견해는

「蘇子瞻이 齊安으로 갈 때 놀았던 장소는 黃州城外的 赤壁磯였다. 당시에 소식이 誤認하여 周瑜가 曹操를 격파했던 赤壁으로 표현했다.」¹²⁾

와 같이 蘇軾의 誤認으로 간주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야 말로 文學藝術의 허구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賦가 역사 서술이 아닌 이상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 사실이나 아니냐를 따질 필요는 없다. 黃岡縣의 赤壁을 왜 嘉魚縣의 적벽이라고 했느냐라든지, 黃岡縣의 적벽기와 적벽대전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니 〈적벽부〉에는 誤記가 많다는니, 蘇軾은 歷史事實에 밝지 못했다는니 등의 생각은 賦文學의 근본원리를 염두에 두지 아니한 소치로 보인다. 소식과 같은 박학다식한 문인이 황강현의 적벽과 가어현의 적벽을 구분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것을 알면서도 황강현의 조그마한 적벽강을 가어현의 揚子江처럼 가상하고, 어선 한 척도 마음 놓고 다니지 못할 황강현 적벽강을 바라 보면서 「軸漚千里, 旌旗蔽空」(戰船이 千里나 이어져 깃발이 창공을 뒤덮었다.), 「浩浩乎如憑虛御風, 而不知其所止」(넓고 넓도다, 허공을 의지하여 바람을 몰고 가니 그 그칠 바를 모르겠다) 등 거대광활한 장면으로 펼친 것은 눈앞의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다. 상상 속의 사실을 끌어와서 눈 앞에 있었던 일처럼 허구화한 것일 뿐이다.

「옷을 여미고赤壁에 올라감에 험준한 바위를 지나 초목을 헤치기도 하고, 호랑이와 표범같은 바위를 걸타기도 하고, 날아 오르는듯한 용모양의 나뭇가지들에 통기기도하고, 솔개가 깃들 위태로운 가지를 휘어잡고 올라 가니 아래로 가마득히 적벽강이 내려다 보인다.」〈後赤壁賦〉

도 그러한 내용이다. 黃岡縣의 赤壁은 원래 城市附近的 나즈막한 언덕에 불과

12) 胡珪, 〈赤壁考〉

하다고 한다. 그 나즈막한 언덕을 이와 같이 험준하고 기괴하고 무시무시하고 신비스러운 언덕으로 바꿔 놓은 것은 다 그 탁월한 허구성에 기인한 것이다. 여기에 〈적벽부〉의 예술성이 응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

五. 結 言

이상에서 살펴본 바 〈赤壁賦〉는 東坡 蘇軾이 47세에 지은 작품이다. 다시 말하면 소식이 인격적으로 가장 건실하고, 학문적으로 가장 완숙하며, 체험면에서 가장 절박한 고비에 쓴 작품이다. 때문에 〈적벽부〉는, 蘇軾의 그 많은 文學作品中 前無後無한 最大傑作으로 公認되었을 뿐만 아니라, 中國賦文學史에 있어서 他的 追及을 不許하는 藝苑眞寶로서의 자리를 굳혀 왔다.

이 〈적벽부〉의 예술적인 가치는 실로 여러 각도에서 감상할 수가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거기에 깔려 있는 思想의 원만융성함, 표현기교의 사실성, 事實의 虛構性 등을 중심으로 그 眞面目이 어떠한 것인가를 간략하게 더듬어 보았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자연스러운 어울림에서 〈적벽부〉는 영원히 생동하는 몸매를 갖추고 독자에게 닥아 설 것이며 무궁무진한 밑어로 독자의 심금을 사로잡을 것이다.